

韓 빅리거5인 출격준비 완료

류현진, 개막전 선발 등판
강정호, 주전 3루수 낙점
오승환, '불펜' 핵심 예상
추신수, 올해도 리드오프
최지만, 주전 지명타자 점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LA 다저스)이 개막전 선발의 중책을 안고 시즌을 시작한다. 류현진을 비롯해 강정호(32·피츠버그 파이 어리츠), 오승환(37·콜로라도 로키스), 추신수(37·텍사스 레인저스), 최지만(28·탬파베이 레이스) 등 한국인 빅리거 5인이 출격 준비를 마쳤다.

가장 기대를 모은 선수는 류현진이다. 지난 시즌을 마친 뒤 다저스 구단으로부터 켈리파잉 오퍼를 받은 류현진은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 나오는 대신 켈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였다. 올 시즌을 마치면 FA가 되는 류현진에게 올 시즌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류현진은 개막전 선발 중책을 안고 중요한 시즌을 출발하게 됐다. 류현진은 29일 오전 5시10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정규시즌 개막전에 선발로 나선다.

왼쪽 어깨와 팔꿈치 부상으로 2015~2016년 암흑기를 보낸 류현진은 2017년 25경기에서 126%이닝을 던지며 5승 9패 평균자책점 3.77로 건재를 증명했다. 지난해 부상으로 공백이 있었지만, 15경기 선발 등판해 7승 3패 평균자책점 1.97을 기록하며 부활을 알렸다.

올해 시범경기에서 5경기에서 15이닝을 던지며 평균자책점 3.00을 기록한 류현진은 부상 여파로 시즌 개막 준비가 늦은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 대신 개막전 선발로 낙점됐다. 한국인 선발 투수가 메이저리그 개막전에 선발 등판하는 것은 류현진이 박찬호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17년 만이다.

류현진은 개막전에서 상대할 애리조나를 상대로 강한 면모를 자랑했다. 빅리그 데뷔 이후 애리조나전 13경기에서 3승3패 평균자책점 3.77을 기록했다.

2016년 12월 저지른 음주운전 사고로 2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던

강정호는 3년 만에 빅리그 풀타임 시즌에 나선다.

강정호는 지난해가 피츠버그와 보장 계약의 마지막 해였다. 피츠버그 구단은 올해 걸려있던 구단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강정호를 FA로 풀어준 뒤 계약기간 1년, 총액 550만달러에 재계약했다. 550만달러를 모두 보장해주지 않고 보장 금액 300만달러, 보너스 250만달러에 계약을 체결했다.

2015~2016년 주전 3루수로 활약한 강정호는 2년 간의 공백 탓에 이번 스프링캠프에서 주전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쳐야 했다. 강정호는 올해 시범경기 16게임에 출전, 타율 0.250(44타수 11안타) 7홈런 11타점으로 불방망이를 휘둘러 주전 3루수 자리를 꿰찼다. 장타력을 뽐내는 동시에 수비에서도 안정감을 보였다.

강정호는 29일 오전 5시10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리는 신시내티 레즈와의 개막전에 선발 출전하며 시즌을 시작한다.

오승환은 올해에도 콜로라도 로키스 불펜의 핵심으로 활약할 전망이다. 마무리 투수 웨이드 데이비스와 함께 경기 후반 마운드를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합의한 계약이 취소되는 사태를 겪은 오승환은 프로 생활 이후 처음으로 트레이드를 경험했다. 그럼에도 73경기에서 68%이닝을 던지며 6승 3패 21홀드 3세이브 평균자책점 2.63으로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무대에서도 섰다.

올해가 오승환의 메이저리그 마

지막 해가 될 수도 있다. 오승환은 지난해 10월 시즌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국내 복귀를 향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오승환과 함께 한국인 메이저리거 마형인 추신수는 올해도 빅리그 15시즌째를 맞는다. 추신수는 29일 오전 5시15분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리는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로 올 시즌을 출발한다.

지난해 추신수는 146경기에 출전해 타율 0.264 21홈런 82타점 83득점을 기록했다. 후반기에 부진했지만 전반기에는 52경기 연속 출루에 성공하는 등 맹활약했다. 데뷔 이후 처음으로 올스타 무대에도 섰다.

추신수는 시범경기에서는 타율 0.211(38타수 8안타) 5타점으로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나 차분하게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텍사스는 올해에도 추신수에 리드오프 임무를 부여한다.

한국인 메이저리거 마네 최지만은 지난해까지 빅리그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지 못했고 마이너리그를 오갔다. 지난해 빅리그에서 61경기를 소화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올해에는 다르다. 메이저리거 신분으로 스프링캠프에 참가한 최지만은 스프링캠프에서 타율 0.366(41타수 15안타) 2홈런 7타점으로 불방망이를 휘둘러 주전 지명타자 자리를 예약했다.

시즌 초반 안정적인 모습을 자랑한다면 데뷔 이후 처음으로 빅리그 풀타임 시즌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지만은 29일 오전 5시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첫 경기를 치른다.

여자컬링, 세계랭킹 2위 점프...역대 아시아 최고순위

세계선수권 동메달 수확해 포인트 대거 획득



한국 여자컬링이 세계랭킹 2위로 올라섰다.

세계컬링경기연맹(WCF)이 28일(한국시간) 발표한 여자컬링 세계랭킹에서 랭킹 포인트 65.907을 기록, 스웨덴(81.569)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한국 컬링 사상 최고 세계랭킹이다. 또 컬링 세계랭킹이 도입된 2006년 이후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기록한 역대 최고 순위다.

김민지(스킵), 김수진(리드), 양태이(세컨드), 김혜린(서드)으로 구성된 대표팀(춘천시청)이 2019 세계

여자컬링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내면서 포인트를 대거 획득했다.

이들의 동메달은 한국 최초의 시니어 세계선수권대회 메달이다.

승현고를 졸업하고 다같이 춘천시청에 입단한 이들은 지난해 8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해 처음으로 시니어 태극마크를 달았다.

대표팀은 컬링 월드컵 2차 대회 은메달, 3차 대회 금메달을 수확했고 2018 아시아태평양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여자컬링은 '팀 킵'(경북체육회)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은메달 등을 바탕으로 세계랭킹 6위에 올랐다.

'리틀 팀 킵'으로 불리는 현대포탈이 가파른 성장세를 자랑하면서 1년 만에 랭킹이 2위까지 올라갔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팀인 캐나다가 63.382로 3위,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스위스가 69.559로 4위에 자리했다. 일본은 66.520으로 5위에 이름을 걸었다.

뉴스



순천시 해룡 팀이 우승 시상을 마치고 곡성군게이트볼협회장(사진중앙)과 순천시게이트볼협회장(사진좌측) 등 결승전 심판까지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했다.

전남동부 7개 시·군 게이트볼대회 막을라

곡성군게이트볼협회(회장 김일승)가 주관하고 곡성군과 군 체육회 후원으로 지난 27일 '제184회 전남동부 7개 시·군 게이트볼대회'를

첫 선을 보여 선수들의 활기를 불어넣는 경기가 되었다.

시군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겨우내 저마다 갈고 닦았던 기량을 이날

곡성군 문화센터운동장서 48개 팀 300여 명 참가

우승, 순천 해룡 팀 차지...준우승, 순천 스마 팀

개최했다. 그동안 추위에 움츠려 열리지 못했던 게이트볼 대회가 새 봄을 맞아

처음 발휘하는 날로 많은 동호인들이 참석해 예선부터 열린 경쟁을 벌였다.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 결승에 오른 순천시 스마 팀은 순천시 해룡 팀을 맞아 초반에 기선을 제압 우세를 보였으나 경기종료 10분을 남겨두고 다 잡은 우승기를 아깝게 놓쳤다.

한편 영광의 우승을 차지한 순천시 해룡 팀(임영택(주장) 허일량, 이기조, 김용진, 서동광)선수는 지난해 마지막 대회인 제183회 구례대회의 우승에 이어 올해 열린 첫 경기에 우승을 차지해 실력을 과시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란 구레군은 지리산은천, 참새미골, 회연사, 선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전-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가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